



### ● 맹사성 (孟思誠)

一三九六年(太祖五年) 八月 二八일 봉상시(奉常時)에서 太祖가 현비(顯妃)의 존호(尊호)와 개국 一等공신 정 희계(鄭熙啓)의 시호(諡)를 잘못 지었다고 봉상시의 직원들을

옥에 가두고 예조의랑 맹 사성(禮曹議郎 孟思誠)등을 탄핵했다.

一三九六年(太祖五年) 九月 五日 정 희계(鄭熙啓)의 시호문제로 맹 사성(孟思誠) 조 사수(趙士秀)등을 파직하다.

一三九九年(定宗一年) 九月 一〇日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로 복직시켰다.

一四〇年(定宗二年) 八月 四日 맹사성에게 좌산기상시(좌산기상시=일종의간관(諫官))에 任命하다.

一四〇年(定宗二年) 一一月 一三日 맹 사성(孟思誠)에게 좌산기상시호 확정했다.

一四〇年(定宗二年) 二월 一三日 문하부 낭사(門下府 郎舍) 孟思誠이 다섯가지 일즉 인재(人材)를 공령히 등용할 것 등을 상언(上言)하니 윤허하다.

一四〇三年(太宗三年) 二월 二七日 孟思誠·軫 등을 좌우 사간대부(左右司諫大夫)를 임명했다.

一四〇四年(太宗四年) 一월 八日 사헌부(司憲付)에서 노비사건을 변정(辨正)한 것을 이유로 좌사간대부 孟思誠을 파직했다.

一四〇四年(太宗四年) 一월 二三日 상기 사건으로 孟思誠을 온수(溫水)로 귀향보냈다.

一四〇四年(太宗四年) 二월 四日 孟思誠을 경외로 종편(從便)하도록 명하였다.

一四〇五年(太宗五年) 一월 一五日 孟思誠을 공조의 부대언(副代言)으로 임명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一월 五日 王의 약을 잘못 조제한 전의감(典疑監) 이주(李舟)와 좌부대언(左副代言) 맹 사성(孟思誠) 등을 탄핵했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一월 一八日 사헌부에서 맹 사성(孟思誠), 이주(李舟)등에게 죄를 주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一월 二〇五日 다시 맹 사성(孟思誠)을 좌부대언(左副代言)으로 삼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三月 一三日 태종(太宗)은 代言 孟思誠에게 말하기를 "내가 외출하는 것을 외인이 알지 못할터인데 諫官들이 외인에게 누설한 것이 아니냐?"하니 孟思誠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니 太宗은 후일을 위하여 주의 시켰을 따름이라 하였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五月 二日 에서 대언(代言) 孟思誠 등을 불러 문과 試에 대해 논의 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八月 三日 이조참의(吏曹參議) 孟思誠에게 낙안(樂安)에 보내어 내사(內舍) 박인(朴麟) 등을 위로케 하다.

一四〇七年(太宗七年) 四月 一八日 文官들을 친히 시험보게 했는데 孟思誠은 대독관(對讀官)을 삼다. 이때 吏曹參議.

一四〇七年(太宗七年) 七月 二日 세자의 혼례를 위해 예문관 제학 孟思誠을 고기사(告期使) 부사(副使)로 삼아가게 했다.

一四〇七年(太宗七年) 八月 八일 세자를 따라 입조(入朝)하는 제학 맹사성등에게 쌀 六〇석과 상포 一〇〇필을 하사했다.

一四〇七年(太宗七年) 九月 一二일 세자 양녕대군이 명나라를 가는데 따라갈 孟思誠

- 등을 위해 광연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 一四 七年(太宗七年) 九月 二五일 양녕대군을 하정사(賀正使)로 보내는데 예문관 제학 맹사성을 시종관(侍從官)으로 명단이 발표되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四月 二日 명나라 황제가 세자의 나이를 묻고 서각문(西角門)에 앉아서 하정사를 대하는데 孟 思誠 등을 뜰에 오르게 하고 접견하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四月 二日 명나라에 간 세자의 시종관 孟 思誠등이 명나라 황제가 영곡사( 谷寺)에 가서 지은 찬불시(讚佛詩)를 속운(續韻)하여 올렸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四月 二日 명나라 황제가 세자 및 시종관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孟 思誠은 은 일정과 표리(웃감) 四필을 받았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四月 一六日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여 동녀(童女)를 모으고 나라에 금혼령을 내리다. 이때 孟 思誠은 한성윤(서울시장) 이었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五月 一日 한성윤 孟 思誠을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으로 삼았다. 즉, 세자부.
  - 一四 八年(太宗八年) 九月 四日 예조판서 이 지(李 至)와 한성윤 孟 思誠을 보내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시책(諭冊)과 시보(諭寶)를 빈전(殯殿)에 올리게 하였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二月 七日 孟 思誠을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했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一二月 五日 조대림사건(趙大臨事件) 일어난. 조대림은 개국공신 조준의 아들로 태종의 부마(사위)였는데 목인해(睦仁海)는 즉, 관노(官奴)인데 활을 잘 쏘았다. 목인해의 괴임에 빠져 발병범궐(發兵犯)한 것이다. 그래서 孟 思誠은 조대림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어 일어난 사건이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一二月 八日 조대림 사건으로 오히려 孟 思誠이 순금사에 가두었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一二月 九日 목인해를 자식들과 함께 교살하다. 그리고 대사헌 孟 思誠은 왕실을 모독한 죄로 매를 건디지 못하여 자백을 하고 아들(監察) 孟 道의금부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一二月 二日 孟 思誠을 극형을 처하라고 판부(判付)하니 大臣들이 반대하는 청을 올린다.
  - 一四 八年(太宗八年) 一二月 一二日 孟 思誠과 朴 安信 등을 귀향 보냈는데 孟 思誠은 한주(韓州)에 있는 향교의 재복(齋僕)으로 정배(定配) 하였다.
  - 一四 九年(太宗九年) 一月 一日 세자 양녕대군이 孟 思誠을 용서하기를 청하다.
  - 一四 九年(太宗九年) 四月 二日 강음현 토지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죄를 범했다고 경하여 벌을 주다.
  - 一四 九年(太宗九年) 四月 二日 조대림 사건에 왕이 언급하기를 "내가 만약 전일에 孟 思誠을 극형에 처하였다면 어찌되었겠는가. 그때 大臣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하였기에 내가 마지못해 따른 것이다." 했다.
  - 一四 九年(太宗九年) 八月 七日 조대림 사건으로 정배(定配)된 孟 思誠을 외방종편(外方從便)하다. (약 九개월만에 귀향살이에서 석방 외방종편함.)
  - 一四一〇年(太宗十年) 八月 一〇日 孟 思誠에게 직첩(職牒)을 도로 주어 京外로 나가게 하다.
  - 一四一一年(太宗十一年) 八月 九日 전 大司憲 孟 思誠에게 米豆 二〇석을 하사하다.
  - 一四一一年(太宗十一年) 一二月 九日 왕이 전 大司憲 孟 思誠등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다.
  - 一四 一一年(太宗十一年) 一二月 一〇日 孟 思誠을 충주목사로 발령하다.
  - 一四 一一年(太宗十一年) 一二月 一九日 孟 思誠이 공안부윤(恭安府尹)에 임명되었다.
  - 一四一二年(太宗十二年) 五月 三日 孟 思誠을 黃海道 觀察使로 임명했는데, 영의정 河 崙이 上言하기를 本國의 樂譜가 다 폐결(廢缺)되어 오직 맹사성만이 악보에 밝아서 오음(五音)을 잘 어울리게 합니다. 지금 監司의 임명을 받아 장차 황해도로 가게 되는데 원컨대 머물러 악공(樂工)을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王께 말하니 교대되기를 기다려서 악곡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허락했다.
  - 一四一二年(太宗十年) 八月 二日 監司孟思誠등 十개 都의 지방관을 곡식이 손상된 상황을 망보(妄報)한 이유로 면직시켰다.
  - 一四一二年(太宗十二年) 八月 二八日 孟思誠 등 諸都의 守令들을 論罪하다.
  - 一四一六年(太宗十六年) 六月 二四日 孟思誠을 吏曹參判으로 임명했다.
  - 一四一六年(太宗十六年) 九月 二七日 孟思誠을 禮曹判書로 임명했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一월 二七日 禮曹判書 孟思誠이 대사례(大射禮)에 관한 글과 그림을 올린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二월 一二일 생원시(生員試)에 孟思誠등을 시험관으로 시켜一〇〇인을 합격시켰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三월 一六일 영의정 남재(南在) 예조판서 孟思誠외 一 인등을 시켜 문과(文科) 시험을 관장하도록 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四월 八일 경희루에서 전기 文科覆試를 시행케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四월 二二일 孟思誠이 부친의 병 때문에 사직고자하나 윤희하 지 않고 역마(驛馬)를 주며, 또 약과 술을 내려 주며 炳이 낫거든 상경하라고 윤희하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六월 一六일 戶曹判書로 임명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六월 二七日 戶曹判書 孟思誠에게 아뢰기를 과전(科田) = <공 무원의 계급에 따라 十一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土地制度>이 골고루 지급되었는지를 묻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七월 一五일 太宗이 신하들에게 단자(段子)와 채견(綵絹 = 옷 감)을 나누어 주었는데 호조판서 맹사성에게는 저사 한 필을 주었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一二月 三日 맹사성을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하다. (아버지 병 때문)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一二月 一五일 왕은 맹사성에게 충청도 관찰사를 명한 이유를 뜻 깊게 말하다. 즉, 아버지 병환 이야기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六월 五일 맹사성을 공조판서겸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으로 발령하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七월 六일 교서교감(校書校勘) 방문중(房文仲)을 계문(啓聞)하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八월 四일 공조판서 맹사성이 아비병으로 사직하다. 왕은 내약 (內藥)을 하사하고 또 역마(驛馬)까지 동원해 주었다.

一四三 年(世宗十三年) 三월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王旨를 받들어 찬하여 올립니다.

    감관사 대광보국 승록대부 우의정 영집현전경연사 겸 판병조사 세자부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領集賢殿經筵事 兼 判兵曹事 世子傅) 臣 맹사성(孟思誠) 동지관사(同知館事) 가정대부 예문관 제학 집현전 제학 동지경연사 세자우빈객 (嘉靖 大夫 藝文館 提學 集賢殿 提學 同知經筵事 世子右賓客) 신(臣) 윤희(尹淮)가선대부 중군 도총제부총제 세자좌부빈객 (嘉善大夫 中軍 都摠制府摠制 世子左副賓客) 신(臣) 신장(申槁)기주관(記註官)조산대부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 (朝散大夫 直集賢殿 知製教 經筵 檢討官) 신(臣) 안지(安止)

    조선대부 의정부 사인 (朝散大夫 議政府 舍人) 신(臣) 윤경(尹炯)

    조봉대부 의정부 사인 (朝奉大夫 議政府 舍人) 신(臣) 조서강(趙瑞康)

    조봉대부 봉상소윤 (朝奉大夫 奉常少尹) 신(臣) 이웅(李 )

    기사관(記事官)

    봉직랑 사간원 좌헌납 지제교 겸 승문원 부교리 (奉直郎 司諫院 左獻納 知製教 兼 承文院 副校理) 신(臣) 안수기(安修己)

    봉직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 (奉直郎 集賢殿 副校理 知製教 經筵 副檢討官) 신(臣) 이선제(李先齊)

    봉직랑 사역원 판관 (奉直郎 司譯院 判官) 신(臣) 박시생(朴始生)

    무공랑 예문 봉교 세자 우부정자 (務功郎 藝文 奉教 世子 右副正字) 신(臣) 오신지(吳愼之)무공랑 예문봉교 (務功郎 藝文奉教) 신(臣) 장아(張莪)

    통사랑 예문대교 (通仕郎 藝文待教) 신(臣) 어효첨(魚孝瞻)

    종사랑 예문검열 (從仕郎 藝文檢閱) 신(臣) 김문기(金文起)

    종사랑 예문검열 (從仕郎 藝文檢閱) 신(臣) 강맹경(姜孟卿)

    종사랑 예문검열 (從仕郎 藝文檢閱) 신(臣) 이종검(李宗檢)

    선덕(宣德) 六年 신해 三月 올립니다.

    합계 三六권

    孟 思 誠 (世宗朝)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讓位年) 九월 一六일 공조판서 맹사성등이 상왕(太宗)께서 흥년을 염려하여 각전(各殿)에 올리는 원도(遠道)의 진상(進上)을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회복하시도록 아뢰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讓位年) 一〇월 二八일 上王(太宗)이 공조판서 맹사성등 고관

들을 위해 주연(酒宴)을 베풀고 당부하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讓位年) 一一월 八일 대설이 내리다. 上王(太宗)과 王大妃(太宗 妃)에게 존호(尊)를 올리는데 태종에게는 聖德神功上王이라 했고 王妃에게는 厚德大王妃라고 했다. 이의식에 맹사성은 독책관(讀冊官)을 했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讓位年) 一一월 一〇일 세종이 맹사성에게 말하기를 경이 관습 도감 제조(慣習都監 提調)가 되어 사곡(詞曲)을 가르쳐 율조(律調)에 합하게 하였으므로 文王께서 기뻐하셨다. 이때 출퇴근용으로 내구마(內廐馬) 한필을 내리셨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讓位年) 一二월 一三日 과거제도에 대하여 맹사성, 허조, 변계량 등과 의논하셨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讓位年) 一二월 一四일 세종이 수강궁에 문안하고 상왕께 현수(獻壽) 하였는데 맹사성도 이 연회에 참석했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一월 一일 황제 및 상왕(太宗)에게 하례하다. 이 자리에서 상왕은 후전진작(後殿眞勻)의 노래와 가사를 평하다. 이 자리에서 맹사성이 후전진작의 음탕한 내용을 아뢰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四월 一七日 맹사성에게 이조판서 발령을 내리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六월 八일 이조판서 맹사성 등에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게 하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九월 二五日 맹사성에게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겸직시켰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九월 二七日 맹사성을 산능도감 제조(山陵都監 提調)를 겸직케 하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十二月 七일 맹사성에게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겸직케 했다.

一四二〇年(世宗二年) 一월 九일 이조판서 맹사성 등 신하들의 진언을 수용하다.

一四二〇年(世宗二年) 一〇월 一七日 맹사성에게 다시 이조판서를 임명하다.

一四二〇年(世宗二年) 一二월 一五日 정분(?)을 석방하고 맹사성, 민교(閔校)를 직소(職所)에 나오도록 명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二월 五日 맹사성이 부친의 병환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五월 二一日 妻子와 사노비(私奴婢)를 임지(任地)로 동행하는 제도에 대해 맹사성이 세종에게 아뢰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 월 二일 호조에서 대청관(大清觀) 수리하기를 청하였는데 맹사성이 이에 관한 경험을 진언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 월 一 일 맹사성등 十一명이 신궁에 문안하고, 술자리에 참석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 월 二五日 이조판서 맹사성이 성(城)을 개축하고 보수하는 것을 진언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一월 一五日 사헌부 집의(執議) 박안신등이 김점(金?)을 벌할 것을 간하다. 六曹堂上 맹사성도 이에 관한 참고 말을 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二월 七일 맹사성을 議政府 贊成事로 임명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二월 二一日 上王이 건원 二 에 참배하는데 贊成 맹사성도 동참하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一월 二二일 태상왕이 맹사성에게 이거이?의 일을 거론하지 말도록 하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五월 一 일 상왕 太宗이 서거하자 맹사성을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 提調)로 삼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八월 八일 평양군 조대림과 찬성사 맹사성을 가사(僧伽寺)로 보내어 재(齋)를 올리게 하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八월 一一일 육전수찬(六典修撰)을 위해 맹사성을 제조(提調)로 임명했다.

一四二三年(世宗五年) 七월 一七日 전 찬성 맹사성에게 등창이 났으므로 약을 내리다.

一四二四年(世宗六年) 三월 二六일 유학(幼學) 곽장(郭璋)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다.

一四二四年(世宗六年) 一二월 四일 맹사성에게 판좌군 도총제부사(判左軍 都摠制府事)를 임명하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四월 二五日 맹사성에게 옷과 갓과 신을 하사했다.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月 二一日 맹사성이 명나라 성절사(聖節使)로 가 있다가 베겨 보낸 조서(詔書)를 의주통사 이 성부(李成富)가 가지고 돌아오다.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月 일 전건(前件)과 결국 같은 내용.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月 二七日 성절사로 북경에 갔던 맹사성이 귀국하다.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月 八일 문신 맹사성을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로 임명하다.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一 월 一二일 영평군 윤계동과 박홍등이 매를 훔친 일을 가지고 상소하였는데 판부사 맹사성과 총제 전홍에게 국문하게 하다.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一 월 一五일 당상악(堂上樂)과 당하악(堂下樂)을 일시에 함께 연주하는 일을 맹사성과 상의하게 하다.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명나라에서 進賀使가 약과 칙서(勅書)를 가지고 귀국하여 경복궁에서 의식대로 예를 행하는 자리에 맹사성도 참석했다.
-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一二月 七일 맹사성에게 이르기를 고려사를 고치도록 하라고 이른다.
- 一四二六年(世宗八年) 三月 五일 세종은 의금부 제조 맹사성등을 불러 화적의 무리를 잡았으면 빨리 문초하여 보고하라고 명하다.
- 一四二六年(世宗八年) 一一月 二二일 조대림 민여의 권진 맹사성등 많은 중진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죄 주자고 하였으나, 조종생만을 파직시키고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一四二六年(世宗八年) 一一月 二四일 상동.
-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一월 二五일 맹사성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임명함.

### 맹 사 성의 일화

맹 사성은 고려말 전교부령을 역임한 맹 희도의 아들로 공민왕 8년(1359년)에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신창, 호는 고불이다. 우왕 12년(1386년) 문과에 장원급제 하였으며 조선 개국후 태종때에는 대사헌으로써 태종의 부마인 조 대림의 죄를 문책하다가 오히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당할 뻔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그의 강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때에는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면서 국왕을 잘 보필하여 세종문화를 빛나게 했으며, 국사에 온 힘을 다 쏟다가 세종 20년(1438)에 돌아가시니, 세종이 친히 임상하였으며 문정공의 시효를 내렸다.

맹 사성은 태종실록을 감수했고 팔도지리지를 만들었다. 향약을 정리했으며 시문에도 능하여 강호사시가 4수가 전한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10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7일간 단식했으며 3년간 죽을 먹으면서 묘앞에서 시묘를 했다.

사생활도 말할 수 없이 검소했으며 천성이 강직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청백리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맹 사성의 고택인 행단이 아산군 배방면 중리에 사적 109호로 지정되어 있다.

맹정승은 궁궐에 다닐 때도 검은 소를 타고 다니셨다. 당시의 정승이면 사인교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는 항상 검소하고 또 서민들을 생각하여

"아무리 고관이라 한들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배부르고 편할 수야 있는가....."

하시며 언제나 그 생활은 서민적이었다.

어느 날 조정에 별일이 없어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오랜 시간을 책을 읽다가 머리카락이 식혀 볼 겸 밖으로 나왔다. 싱싱한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고 울긋불긋한 진달래가 물들어 배방산은 온통 진달래밭이었다.

맹 고불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설화산엘 오르고 있었다. 얼마쯤이나 올랐을까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고 돌연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검은 산짐승이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 산짐승을 처음 보는지라 무섭기도 하고 또 짓궂은 아이들이라서 이 검은 짐승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니, 이 검은 산짐승은 성을 내며 달려들었다. 이 청년들은 작대기로 휘두르며 이와 대항하는데, 짐승과, 청년들은 서로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이였다. 마침 이러한 위험한 광경을 본 맹 정승은 그 앞으로 가까이 갔다. 청년들은 깜짝 놀라 모두 작대기를 땅에 놓고 옆드려 절을 하는데, 이 검은 짐승은 맹 정승의 옆으로 감돌면서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 모습을 알아 차리고,

"너희들은 어서 가서 딸나무나 하거라."

하고 그 검은 짐승의 등을 어루만져주니, 이 짐승은 더욱 좋아하며 활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며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을 따르는 것과 같았다. 맹 정승은

"이상한 짐승도 다 봤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청년들로부터 살려주어 그 감사하는 보답으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

하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이 짐승이 뒤를 어슬렁 어슬렁 따라오는게 아닌가. 할 수 없

이 따라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집까지 따라 오는지라 공은 기이하게 여기고 밥을 주고, 이 짐승을 기르기로 하고 하인들에게도 "절대 해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 하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산짐승은 키가 크더니 얼마 안가 큰 검은 기린으로 성장했다. 성품도 온순하여 하인들의 말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공을 편안히 모시는데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기린을 가리켜 검은 암소라고도 하였다. 이 검은 소를 타고 서울로 나랏 일을 보러 다니시는데 이 신기한 기린은 온양에서 서울까지 꼭 맹 정승을 태우고 다녔던 것이다.

지금도 이 기린이 나타난 그곳은 「기린고개」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으며, 이상한 것은 맹 정승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도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죽었다 하니, 비록 짐승일망정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후도 같이 마쳤다 하여 그 짐승을 공의 산소 옆에 묻어 그 무덤을 흑기총이라 이름 지었다. 또한 흑우총이라고도 불리운다 한다.

한날 미물일지언정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 짐승은 낮은 아마 우리들 가슴에 길이 본보기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1369년(고려 공민왕 18년) 7월** 나라안에서는 흉건적이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고, 2월달에는

왜구가 내포, 선주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하던 때이다. 이에 대처하여 이성계가 흉건적을 무찌르고 백성들은 왜구들의 침입을 함심하여 물리치니, 오랜 시달림에 백성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맹 사성이 있던 온양만은 흉건적이나 왜구가 아직 손을 뻗치지 못한 곳이라서 평온하기는 하였으나 집안의 어머니 병환은 더욱 심하기만 했다. 맹 사성의 정성어린 간호도 보람없이 그 해 무더운 여름, 어머니는 돌아가시기전 맹 사성을 앞에 앉혀놓고, "사성아! 나는 이제 조상님의 부름을 받아 먼 길을 떠난다. 어린 너는 내가 이 길을 떠나는데 훌륭히 뒷바라지를 해주어 고맙구나.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떠난다 해도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이 엄마는 먼 곳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만 너는 사랑방으로 나가 있거라."

사성은 비록 나이 10살이었을망정 영리하여 어머니의 말뜻을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사랑방으로 나가지 않고 뒷걸 장독대로 가서 하늘을 쳐다 보며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다.

"설마, 어머니가....."

하고 안 믿으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말씀이 언제까지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원래가 돌아가 길때는 가족들을 불러 들이는 법이나, 사성의 어머니는 자기가 눈감는 꼴을 어린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생각엔 죽으려고 신음하는 그 추악한 모습을 어린 것에게 보여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사성은 어머니에게 마음껏 효도하지 못한 슬픔에 7일간을 물 한모금 먹지 못했다. 이어 장례가 끝나고 사성은 어린 동생 사경을 데리고 어머니의 유물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무덤 옆에 막을 하나 손수 지었다. 평소 어머니를 모시던 때와 다름없이 늘 그 무덤 옆에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입김을 받는 감촉을 느꼈다. 무덤 속의 어머니가

"사성아!"

하고 찾는 것만 같은 나날이 계속 되었다. 동지선달 매서운 추위가 살을 에이는 것 같을 때는 땅 속에 잠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추위는 불효로 지은 죄를 씻어 주지는 못할 것 같았다.

**1370년**, 이 때로 나라 안은 흉건적과 왜구들로 나라가 평온치 못했으며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나라 정치를 돌보지 않아 벼슬아치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나라안은 몹시 어지러웠다. 사성은 나라가 되어 가는 꼴도 어린 가슴에 걱정이 되나, 어머니의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원히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무덤 옆에 한 그루의 잣나무를 심어 어머니를 위하듯 정성껏 가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잣나무를 들여받아 가지가 마치 어머니를 짓밟히는 것 같았다. 그는 목을 놓아 울었다. 그의 슬픈 울음은 산천에 메아리쳤다. 그 때였다. 난데없이 범이 나타나 도망치는 멧돼지를 한 입에 물고 흔드니 멧돼지는 힘없이 쓰러졌다. 이래서 사람들은 사성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것처럼 사나운 멧돼지를 호랑이가 죽여 그 나무는 다시 무성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온 나라에 퍼져서 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가삼히 여겨 온 국민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효자 정문을 세워 주었다.

맹 사성은 3년동안 묘막을 짓고 어머니 무덤 옆에서 시묘를 살은 것이다.

아! 이는 거룩한 효심의 극치이니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복하리로다. 그의 넋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 있으니 그 깊은 뜻 영원히 살아 숨쉬리.

칠월 칠석도 사흘밖에 남지 않은 무더운 여름 날이다.

7월 장마도 그 위세가 물러간 지가 어제의 일이거늘 무더위는 한창이어서 방안에 앉아 고불의 이마에선 땀이 흘러 책장을 적신다. 고불은 늦더위를 참기 어려운 듯 읽고 있던 책장을 덮어 두고, 이마의 땀을 닦으며 문밖으로 나갔다.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한줄기 불어 오는 것이다. 고불은 대문 밖을 나가 집 뒤 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 그늘 사이로 북서풍

이 지나가니 온 몸의 식은 땀이 몸시도 상쾌하다. 호미 한 자루를 손에 든채 밭으로 향하고 있는 고불의 모습이 정승이 아니라 촌 농부 할아버지다. 열무를 갈아 놓은 밭에는 드문드문 잡초가 7월 장마에 싱싱하게 열무 사이로 뻗어가고 있었다. 고불은 폭양이 내려 쪼이는 밭에 앉아 김을 매기 시작했다.

언제나 고불은 고향에 내려오면 자기가 손수 백옥으로 만든 피리를 불기도 하고, 밭이나 뒤의 뜰에 나가 김을 매주기도 했다.

음악에 천재적 소질을 가진 그는 항상 피리를 불어 방문하는 관원이나 선비는 동구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고불이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방문한다는 것이다.

마침 현감이 새로 부임했다. 관내에 재상이 사시는지라 부임하시자마자 고불을 찾아보는 것이 도리어서 그 날도 현감은 아전과 노비 몇 사람을 데리고 고불의 대문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행랑을 찾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감을 뵈려고 왔다."

"대감은 지금 뒷밭에 가셨으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것 없다. 어디 계신가? 내가 가서 뵈리다."

하고 현감은 고불이 김매는 밭을 찾아 갔다. 이때는 마침 오후 한 시경이었다. 김매던 고

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소관은 새로 부임한 온수현감이온데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한다. 고불은 현감을 보고,

"이 더위에 다른 일도 바쁠텐데 먼 길을 와주어 고맙군."

하고 대답한 후 현감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현감은 자기 소개를 낱낱이 고하고 서로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어 안에서 점심 식사가 나왔다. 현감은 생각하기를 정승덱이고 오랜 세월을 고관으로 지내셨으니 굉장한 음식이 나올 줄만 알았다. 그러나 상위에 나온 반찬은 파국과 보리밥, 그리고 고추장에 간장뿐이다. 현감은 놀랐다. 한나라의 재상이 이와같이 보리밥에 거친 반찬이라니, 혹시 대감이 일부러 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승의 앞이니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먹는 동안 마는 동안 보리밥을 먹어 넘긴 현감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 그도 그럴것이 한 고을을 담당한 원님이고, 또 원래가 부잣집에 태어난 귀공자인지라 생전 처음 먹어 보는 식사였다. 이어 고불이 웃으면서,

"현감은 이런 거친 음식의 참맛을 모르시는구려. 조정의 대신과 지방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위로 왕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 만백성에 앞서 모든 일에 검소해야 하고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일지라도 근면과 배고픔을 몸소 체험하여 백성과 괴로움을 같이하고 조용히 타이니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이오."

하고 조용히 타이니 현감은 머리를 숙인채 무릎을 꿇고 크게 반성하는 빛을 보였다.

그 길로 이 현감은 온양으로 돌아가 고불에게 크게 감동하고 자신의 정성을 오직 백성을 위한 일에만 쏟아 고을을 잘 다스려 온양 고을에서는 처음 만나는 현감이라 하여 그의 공적을 높이 기리어 비석을 세웠다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던가. 그의 청렴결백은 오늘까지 전해지어 아직도 청

백리로 이름을 남기고 있으니, 이 아니, 따를 바가 아니던가!

맹 정승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머니 산소에 성묘차 온양엘 자주 간다. 그날도 집에 급히 볼 일이 있어 한양을 떠나 온양으로 가는 길이었다. 때는 마침 가을이라 단풍이 울긋불긋하고 들에는 벼가 황금물결을 이루고 농부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도 아랑곳 없이 벼베기에 바빴다.

한양을 떠난 지가 너덧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먹구름이 해를 가리더니 철답지 않게 소낙비가 쏟아진다. 맹 정승은 어디 피할 데가 없나 하고 앞을 바라보니 저편에 정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정승은

"옳지, 저 정자에 가서 잠시 비를 피했다 가자"하고 급히 뛰어 정자에 올라가 한쪽구석에서 있으려니까 어떤 선비 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거만스럽게 왔다갔다하며 현판에 쓰인 시를 훑어 나서 읽고 있었다. 맹 정승은 "부모 덕분에 글깨나 한 선비로구나!"하고 무심코 한쪽 난간에 앉아 긴 담뱃대를 꺼내 피어 빨고 있는데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더니 빗소리에 질세라 그 선비는 목을 돌구어 시를 읽다가 거만스럽게 정승을 돌아본다.

"어보 늙은이, 당신이 이런 좋은 글맛을 알까? 참, 글이란 좋은거야."

하고 의기양양하게 정승을 알잡아 본다. 참으로 꼴불견이었다. 그러나 정승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며

"무지한 늙은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고 공손히 말하고

"그게 무슨 뜻이오니까?"

하고 그 글의 뜻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응, 이 글은 옛 시인들이 경치를 바라보고 흥히 나서 읊은 시인데 시중에서도 산 글이지."

하며 거들먹거리며 글 뜻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정승은 나이가 그 사람보다 열살이나 더 먹어 보이는데 글 줄이나 안다고 아니꿈게 반말을 하는데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그가 하는 꼴을 더 보려고 정승은 허리를 굽살거리며,

"거 참, 좋은 글이올시다. 선생님이 아니 계셨다면 어떻게 그 좋은 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니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맹 정승은 원래 본바탕이 조정에서 일을 볼때는 할 수 없이 관복을 차려입지만, 집에서는 정승이면서도 일반 옷을 입었으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낡아서 형편없다고 한다. 정승은 항상 말하기를

"백성을 위해서 나랏일을 보는 사람이 어찌 좋은 옷에 좋은 음식과 좋은 집이 필요한 말이오. 굶주리는 백성과 헐벗은 백성, 병에 신음하는 백성, 이렇게 고생이 심한 백성들이 지금도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관원이나 고관들이 호화로워서야 어찌 백성들을 대할 수 있겠오."

하고 청렴결백하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래서 그날의 정승 옷차림이나 태도도 평민적이었으며, 평소 정승의 생활태도이기도 했다. 그런데 마침 정승이 떠나신

뒤 비가 쏟아지는지라 하인들이 집을 나서서 도착한 곳이 정자 앞이었다.

정자 저편에서 말과 가마를 이끌고 하인들이 모두 정자 앞에 모여 정승에게 절을 하니, 그 행차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거만을 떨며 글깨나 하는 착하던 그 선비가 이상히 여겨 그 중의 하인 한 사람을 불러

"뉘 행차냐?"

하고 물으니

"너는 그것도 모르냐? 맹 정승의 행차다."

하는 바람에 이 선비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새파래지며 사시나무 떨 듯 한다.

"대감을 못 알아보고 지은 죄 죽어 마땅하오니다."

하고 용서를 빈다.

정승은 웃으면서 그 선비를 일으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사람은 아는게 많을수록 말이 적고 행동이 바르게 되는 것이니, 이후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익는 벼가 되도록 하시오. 보아하니 글 재주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를 찾아 주오."

하고 위로했다.



아는 것이 힘이라면 모르는 것은 약이라, 아뿔사 이 선비 아예 글을 몰랐다면 그런 망신은 안 당했을 것을.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오만한 마음은 모든 일을 그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만을 버리고 겸손과 성실로써 우리의 삶을 알차고 충실하게 뛰어나가야 하겠다.

고불의 연세가 75세가 되자 더 이상 벼슬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나랏일에 지장이 될

것을 생각하여 세종대왕에게 벼슬자리를 물러 나겠다고 했으나 세종은

"대신 같은 훌륭한 분이 조정에 더 머물러 나랏일을 보살펴 주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고불은 몸이 주도로 쇠약해지고 나이 75세니 이제 농촌으로 물러가 남은 생활을 휴양이나 하다가 가겠다고 극진히 말씀드려 마침내 좌의정으로 그 벼슬의 막을 내리셨다. 세종은 중요한 대신을 조정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늙은 몸에 무리한 부탁을 더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허전함은 마치 한팔을 잃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성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관리들 앞에서 고불의 공적을 차치하고 아쉬운 송별잔치를 성대히 끝마치고 하는 말이

"비록 경이 조정을 떠난다 하더라도 가끔 조정에 나와 나를 도와주도록 하시오."

세종의 간곡한 부탁에 고불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어찌 소신의 몸 편함을 생각하오리까? 비록 이 자리는 뜨더라도 가끔 뵈옵고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하곤 온양에 와서 한가한 날을 보내면서 지은 시가 저 유명한 강호사시가이다.

고불의 나이 79세가 되자 몸은 더욱 쇠약해지고 기운과 힘이 다하고 병이 들어 한양에 가서 치료를 해보았으나, 끝내는 그 보람도 없이 세종 20년(1438년) 10월 4일 세상을 떠났다.

고려말 세상이 어지러울 때 태어나시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 고불은 오로지 청렴결백으로 백성을 위하는 일에만 정성을 다하였다.

고불의 인생은 나라 사랑과 부모께 효도, 훌륭한 정치, 따스하고 자애로운 마음씨로 온 백성의 존경을 받은터이니 이로 조선의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10월 초사흘, 고불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세종은 모든 대신들을 데리고 문상을 하였으며, 장례식은 나라에서 치루어 주리로 하여 고불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고불의 영구를 고향인 온양으로 옮기던 중 경기도 광주 땅 판교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상여를 덮었던 명정이 날아 올라 순식간에 공중을 맴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 명정이 날아간 곳을 찾아 따라가 보니 직동이라는 곳의 언덕에 떨어졌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세종은,

"이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다. 그 곳은 좋은 자리일테니 그 자리에 고불의 산소를 써라."

이래서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 직리에 산소를 정하였다 한다.

인자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슴의 아픔을 가져다 준다. 불교의 윤회설이 사실이라면 맹 정승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가 일깨워 주시리라 생각하여 오늘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맹 사성의 출생지는 지금의 개성이다.

공민왕 8년 7월 17일에 출생하셨는데 공의 자는 자명 휘는 사성, 호는 고불이며 맹 희도의

아들이다. 문하부시중 최 영 장군의 손서이시며 당시로서는 최고 관직에 계신 분의 손녀딸을 공에게 허락하셨으니 공의 인품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치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다.

공이 우의정에 이른 어느 날, 공은 한식날 온양의 산소에 성묘하려고 갔다가 상경하는 길이었다. 때가 마침 초봄이라 만물이 동면에서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대지를 힘차게 박차고 솟아 오른 새싹들이 수줍은 듯 햇빛을 받고 진달래가 만발하여 산천 경계가 파랗고 붉게 치장을 할 때이다.

공은 언제나 그 차림새가 서민적이어서 정승으로 계시면서도 입고 다니는 옷은 언제나 허술한 시골 노인과 다름없었다. 누가 보아도 그를 정승이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했다. 초봄 햇

빛이 따사롭고 꽃내음과 새싹을 스쳐오는 훈풍을 호흡하면서 검은 소를 타고 어슬렁어슬렁 한양을 향해 가던 중 봄비를 만났다.

"봄비는 움이 트는 젖줄이다. 봄비를 좀 맞은들 어떠하랴."

하시며 검은 소등위에 의지한채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가랑비는 어느 덧 소낙비로 변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공은 그제서야 용인의 마을 어귀를 걸어가고 있었다. 소낙비가 세차게 쏟아지더니 이제는 할 수 없이 소등에서 내려 문패도 없는 어느 주막집 처마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미 옷은 젖어 있었다. 젖은 옷을 툭툭 털

면서 소는 추녀 밑에 소를 매어두고 방으로 들어갔으나 옷이 젖었으니 좋은 자리엔 앉을 수도 없거니와 아랫목에는 이미 어떤 건장한 사람이 하인을 여러 사람 옆에 앉히고 점잖게 앉아 있었다. 공은 젖은 옷을 여미며 구석진 곳에 가서 앉았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만한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랫목에 앉은 사람은 돈 깨나 있는 부잣집 아들인 것 같다. 언뜻 보아도 그 옷차림이라든지 종을 거느리고 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한 부잣집 아들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공을 보고, "영감님, 편하게 앉으시지요."

하고 제법 거만하게 권한다. 그제서야 서로 낯모르는 사람끼리 말문이 열린 것이다. 나중

에 알고 보니, 그는 영남사람으로 녹사시험을 보려고 한양에 가는 사람이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주룩주룩 퍼붓고 예나 지금이나 비오는 날에는 그런대로 낭만이 있어 방에 틀어 박혀 장기를 두거나 내기 화투를 하거나 조용히 오락을 즐기는 것이 상례이다.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로 말문이 열렸으니 심심풀이를 하기에 이르러 장기를 두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았다.

촌부자 아들이 서울 친척집에 하나는 촌노인이 서울 아들집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장기를 몇 번 두는 동안 그 선비는 약간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기를 두는 족족 영낙없이 지는 것은 선비쪽이니 말이다.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이번에는 선비의 하인들마저 훈수에 끼어들어 이농저농 훈수를 들었으나 허사였다. 장기는 점입가경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물러달라는게 일수였다. 그래서 공은 물러줘가며 장기를 두니 그들은 이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노인의 장기수에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하여 장기 두기를 자진 포기하는 것이었다.

"저 노인장의 장기는 장할 수가 없구려, 그만 둡시다."

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들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는 모양이다. 다른 기구로 대결을 할러

니 오락기구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노인의 입성을 보아하니 양반은 양반이나 일자무식일게다. 어디 이번에는 글자를 써

서 묻고 대답하는 놀이를 해보자."

하고 알잡아 본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묻고 대답하는 말끝에 「공」자와 「당」자를 달아서, 주고 받기로 하였다. 먼저 고불이 묻기를

"무엇하러 서울에 가는 공."

하니

"녹사시험 보러간당."

하고 대답했다. 사성은 웃으면서

"내가 벼슬에 임명해 줄공."

하고 물으니 그쪽에선 또,

"놀리는 것은 옳지 않당."

이렇게 주고 받는 사이 어느덧 날이 개고 그들은 서울로 와서 각기 길을 나누었다. 며칠 후의 일이다.

공이 정사로 관아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시험을 보려고 들어 왔다. 공은 물었다.

"어떻게 되었는공."

그 사람은 그제서야 사성이 우의정이라는 것을 알고 얼굴빛이 변하며, 물러나 앞드려 대답하기를

"죽어 마땅함니당."

하고 대답하였다 한다.

이와같이 주막에서 비를 피하다가 만난 그는 맹 사성이 재신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내놓아 재신들도 감동하여 모두 웃었으니 이런 인연으로 그 선비를 녹사에 임명해 주었으며 뒤에 사성의 힘으로 여러 고을 벼슬을 하였다는 일화이다.

이에서 우리는 거만은 나중에 커다란 것을 잃는 독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기 위해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한, 그리고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